함평군

민주평화당 함평군수 이윤행 예비후보

50대 기수론… '더 살기 좋은 함평' 깃발 내세워

전 · 현임 군수 불화와 반목으로 분열된 민심 봉합

민주평화당 함평군수 이윤행 예비후보는 "전 · 현임 군수의 불화와 반목이 지역을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군민이 평화롭고 더 살기 좋은 함평을 위해 젊고 새로운 '50대 기수론'을 내걸고 함평군수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민선 4기 초임의원 시절에는 40대 젊은 나이로 의욕이 앞서 예의에 벗어난 실수와 공무원들과의 충돌도 있었지만, 민선6기 의회에서는 더 넓은 시야에서 수용과 포용의 합리적 의정활동과 더불어 의장의 중책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윤행 예비후보는 군정목표를 '군민이 평화롭고 더 살기 좋은 함평'으로 정하고 ▲청년과 노인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 ▲기술과 지식중심의 기업 및 산업육성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친환경 농업 육성 ▲읍 · 면 소재지 상가활성화 및 마을 경쟁력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교육 문화 관광의 융 · 복합체계 구축 ▲군민중심의 화합행정 등 분야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박래옥 함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과거적폐 철저한 진상규명…인구 5만 늘리기 정책

더불어민주당 박래옥 함평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예로부터 우리 함평은 의롭고 풍요로운 고장이었다"며, "그간 일부 지도자의 독선적이고 낡은 정치 형태로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편 가르기를 하여 서로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함평인구 5만 늘리기' 일환으로 ▲빛그린산단에서 나산면에 이르는 지방도 확장으로 인한 접근성 상승 ▲빛그린산단 주변 주거복합단지 조성 ▲축사 단지화 및 축산위생사업 강화로 함평에 많은 축사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 ▲함평읍 임대영구주택 단지 조성 ▲귀촌 · 귀농 체험단지를 조성 및 귀농학교 운영 및 귀촌지도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과거적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동함평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백억대 수의계약 ▲함평군의 빚이 수백억원으로 늘어난 과정 ▲농업보조금에 있어서 사기와 횡령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편중과 중복지원 ▲여러 인허가 절차에서 차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백서를 발간하여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

무안군

민주당 김만수 나선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지역 현안사업 추진 · 지역민 일자리 창출 앞장"

더불어민주당 김만수 예비후보는 나선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제7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농민의 아들로서 농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쌀값폭락의 대책마련과 수발아 피해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농어업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남악신도시, 무안군 미래발전 원동력이자 구심점으로서 육성 ▲농업인의 든든한 대변자 역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 문제 해법 제시 및 해결 ▲마을이장과 부녀회장의 처우개선 ▲지역 현안사업 성공적 추진 및 지역민 일자리 창출 ▲청소년 복지 추진 ▲군민 대변자 본연 임무 충실 등을 제시했다.

◈김만수 걸어온 길

▲목포대학교 한약자원학과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예비역 육군소령 예편 ▲국가유공 보국훈장 광복장 ▲전)민주당 무안 · 신안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전)무안군 재향군인회 이사 ▲제7대 무안군의회 의원 ▲제7대 무안군의회 의회운영기획위원장 ▲현)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위원회 위원 /이민행 대표기자

민주당 이정운 군의원 예비후보 출마의 변

"노령화 · 저출산 문제 등 행정에 최선 다할 터"

이정운 더불어민주당 무안군 나선거구(삼향읍 일로읍 청계면 몽탄면) 군의원 예비후보는 "22년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관청중심의 행정 행위를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제는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악지역은 영유아교육기관의 환경개선과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향상,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 확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운 후보는 "농촌지역은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영농인력지원 제도, 농기계임대사업 확충,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득활동 사업 확충 등에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정운 걸어온 길 ▶학력 ▲목포고등학교 졸업(1977년)▲호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8년)▲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2017년) ▲서삼석 무안군수 비서실장▲무안군청 지방행정사무관 ▲현)초록우산어린이재단 무안군지회 부회장▲현)남악고등학교 운영위원 ▲제7대 무안군의회 의원(다 선거구) ▲무안군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민행 대표기자

정태성 민주평화당 군의원 예비후보

"초심 잃지 않고 의리 지킬 터"

민주평화당 무안군 가선거구 정태성 군의원 예비후보는 "기초의원은 입법적 · 정책적 전문성과 주민대표성 등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지역주민의 대표기능보다는 자기 자신과 지지자만을 위해 앞장서면서 주민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태성 예비후보는 건설업을 경영하면서도 22여 년간 기자로서 소임을 다해왔고, 10여 년 동안 한국기자협회 지역회장을 맡아 주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정 예비후보는 무안읍은 "교육 · 행정 · 교통 등 모든 기반인프라가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칠산대교로 인해 스쳐가는 읍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첨단산업 유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망운면은 "첨단산업인 대단위 항공정비단지가 망운면 무안공항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금년 실시설계 예산으로 10억원이 책정됐다"며, "이를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해 날로 쇠퇴한 망운면과 고립화된 무안읍을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경면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양질의 황토와 청정갯벌해안이 비교우위에 있다"며, "고구마클러스터와 해양레저산업육성, 농수산물특구 등 현재 미진하게 추진되는 이를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운남면은 "김대중 대교 인근에 신조, 수리정비 등 조선소가 들어설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며, "특히 민간자본으로 조성해야하는 산업단지로 그동안 주민대표인 기초의원이 앞장섰어야 했지만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면서, "조선 산업을 키워드로 낙후된 운남면 살리기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제면은 "올해 목포수협에서 40억원을 투입해 '도리포위판장' 건립이 착공될 예정"이라며, "어선이 입항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항만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물김생산 어가소득이 매년 약 80억원에 이르는 만큼 어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들을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성 예비후보는 "이제는 주민이 바꿔야한다"며,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기초의원의 역할에 한계는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곁에 언제나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그날까지 노력 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정길수, 무소속 무안 제1선거구 도의원 출마

'더 큰 발전, 더 클 무안' 군민과 함께 이룰 것

무안군 제1선거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길수 후보는 "늘 부족한 자신을 4선 군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14년이란 4선 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무안 발전을 위해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무안의 대형 · 고층건물 화재에 취약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지사, 전남소방본부장 등을 만나 무안소방서 신설을 관철시켰다"고 군의원 재임 때를 술회했다.

정 예비후보는 "무안군에는 수출기업 35여개 기업을 포함하여 15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있다"며, "이러한 기업에 우리 무안의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수준 높은 요양병원 확보와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격고 느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발전, 더 클 무안'을 위해 신뢰와 소신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길수 예비후보는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 촉구결의안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조속지급 촉구결의안 ▲무안-광주 민간공항 이전 통합시기 조기 확정 촉구결의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전)새천년민주당 중앙당 대의원/제5대 무안군의회 의장- /이민행 대표기자